

< 경남 합격 후기 / 민쌤 1년 인강 >

경남 / 재수 / 올인 / 1차: 80.33 2차: 96.44

*1차 교직논술 후기

항상 이 시험은 저희에게 서프라이즈 인가요! 시험 유형이 시험 당일날 문제를 봐야 할 수 있어서 긴장을 많이 하고 갔어요! (작년에 내용 점수가 10점에서 15점 체계로 바뀐것을 당(?)해봐서 π π) 논술은 기출을 세 번 정도 돌리고 들어갔어요. 기출을 돌리면서 자신만의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것 같아요. 내용체계는 시험 문제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논술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개요도를 많이 활용했어요. 논술의 내용은 개요도를 쓰며 생각해놓고, 논술 답지에는 문장화 해서 옮겨 쓰는 수준으로 준비했어요. 개요도를 뽐뽐하게 써놓으면 답지에서 말이 막혀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잘 써졌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1년 패키기 강의 중 논술 강의를 빼놓고 들었는데,,, 강의를 들었어야 했어요 π π

애플스타인 나와서 너무 놀랐지만, 민쌤이 강조해 주신 것이라서 다 외우고 들어갔어요.

저는 첫 글자 따서 ‘의지의지가자’ 라고 외웠어서 ㄱ ㄱ 논술 내용을 구성하거나 적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점수는 높지않게 나와서,,,, 민쌤 논술 강의를 들었어야했구나 라고 크게 많이 느꼈답니다.....

*1차 전공 후기

-혼돈의 1교시를 마치고 나면 토네이도급 2교시가 다가와요.. 1교시 엄청 애쓰고 한 시간 쓰고 나면 몸에 힘도 없고 앞으로 2,3교시 어떻게 풀어야할지 힘들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관리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저는 올해 민쌤 강의 외에 다른 자료는 많이 보지 않았어요. 민쌤이 주신 자료가 워낙 좋아서, 민쌤 자료, 용어, 내용을 기본으로 잡아갔어요. 올해는 재수인 해였어서, 초반에는 초수일 때 알던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내용을 익혀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해야할 것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쌤이 1년동안 제시해 주는 자료만 해도 충분히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에 믿고, 공부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 시험장에서 문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 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잘 풀었던 문제보다 놓치고 실수 한 문제들만 떠올라서 멘탈이 망가져요. π π

그걸 알기에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실수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문풀이랑 모의고사 때 부터 문제는 단어별로 끊어서 읽고 이해 한 뒤, 전체를 읽어 이해하려고 했어요.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을 읽어서, 전체 지문을 읽으며 필요 없는 시간을 없애려고 했어요.

- 전체 줄글을 많이 읽어야 해요.

요약본은 마지막에 10월 넘어가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읽어지게 되어있어요. 이미 1월부터 공부해 오던 것들이 이해된 시간 이후라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가 빠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도 꼭꼭 씹으며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중 하나가 줄글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6월까지 있는 개론, 각론,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열 번 이상을 돌려 보았던 것 같아요.

강의듣기 전 예습으로 읽고, 중요한 것 연필로 표시하면서 한번 더 읽고, 강의하면서 한번 더 , 강의 복습 등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읽으며 외우려 하지 않아도 익혀 지도록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책의 목차 순서를 외우면 나중에 머릿속에서도 찾아가는 길이 잘 만들어졌어요!

- 정서적 지지가 필요해요.

저는 올해가 재수인 해였어요. 다행히도 초수 때 부터 스터디 친구들을 잘 만나게 되어서 올해까지도 잘 공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원을 모집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원래 친분이 있는 친구 한명을 위주로 해서 아는 친구 아는 후배 이렇게 알게 되면서 스터디를 구성한 케이스예요!

전 1년 동안 스터디를 함께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위로와 정보가 되어주고 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함께 스터디를 할 때에는 일주일에 한번 씩 논술 기출 돌리고, 각자 주차별로 주제를 정해서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예를 들어 부모교육 주제 문제를 만들게 되면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가 문제를 만들어 올 때도 있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실제로 이 시험이 힘들고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스터디 하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 모든 공부는 케바케예요.

저는 산만한 스타일이라서, 한번 공부해야지 해서 3-4시간 집중하지 못했어요. 공부하다가도 궁금한 것이 떠오르면 네이버가서 10분 놀고 다시 공부하고를 반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뻥뻥한 공부량은 오히려 저에게 실패감만 안겨주었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알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자료를 방대히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강의 따라 가기에다 벅차서 힘들어했지만, 저 나름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의 비교를 하지 않아야 해요! 다 다른 사람들이라 다다르게 공부하는 것이 맞아요. 자신을 믿고, 꾸준한 것이 중요해요.

*2차 시험 후기(면접, 수업실연, 실기 등)

2차 시험은 합격 후에 2차 스터디 선생님들을 만나서 수업실연, 면접, 계획안 작성 등을 해 나갔어요.

2차는 무조건 1차보다 더더더 스터디가 필요해요!

누군가 다른 시야로 저를 바라봐주면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 등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스터디는 계속해서 수업하고, 면접 답하며 피드백 받아야 해요.

2차 강의를 통해서 2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틀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뒤 스터디 선생님들과 수업별로 실연 하고, 녹화하며 표정과 말투, 시선등을 교정해 나갔어요.

저는 면접을 더 힘들어 하던 케이스여서, 전문적인 용어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언을 해드리면 제-발 1차 공부와 2차 공부를 병행하시는게 훗날 2차를 준비하시기 좋을거예요! ^^

작년 초수 때는 1차 불합이어서, 2차 시험은 재수인 올해 처음 경험하였어요.

막상 면접관 앞에서 대답 할 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2차도 멘탈이 탈탈 털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가셔야 해요.

저희 지역은 평가원 지역이었고, 저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계셨어요.

끝에 두 분은 받게 웃어주시고 하는데 반대쪽 두 분은 표정이 아예 없으셔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을 “이분들을 나에게 점수를 주기위해 오신 점수요정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들어가서는 답변을 하거나, 표정들이 잘 표현되어 나온 것 같아요.

수업실연은 올하는 특이나 미리 설정해준 조건 같은것들이 많아서, 수업에 다 녹여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사실 수업실연 하고 나와서 조건들이 생각나서, 발표전까지는 ‘수업 조건을 거의 다 못지키고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유형이 정말로 나올까 하던 새노래가 나와서 당황해서 조건 보다는 그냥 “제가 새노래를 이렇게 수업해요” 를 보여주고 온 느낌이었어요 ㅜ ㅜ
수업할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웃다가 웃으며 나왔어요. 여튼 그래서, 전 수업 망했구나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1점만 깎여서, 점수요정
님들은 실제로 점수요정님인 것으로 판명났어요.. ㅋ ㅋ ㅋ

*수험생활 전반의 TIP

꾸준함.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따로 고시문 스터디, 기상 스터디 등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으로 아침에는 고시문 쓰고, 성경읽고, 공부시작 등 항상 지켜야 하는 틀은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말의 힘을 믿어야 해요. 시험준비하는 내내, 난 1차 안될거야, 2차 안되면 어쩌지 라는 말을 거의 입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말할때는 난 잘될거야. 올해된다. 잘하고 있다. 등 스스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기대를 부담스러워 하지 말아요. 물론 저도 가족들이며 지인들이 엄청 응원해주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것은 나이고, 내가 제일 힘들고, 합격을 못해도 내가 제일 힘들어라는 말을 농담처럼 표현했어요. 이 시험이 결과를 놓고보았을 때, 되었다, 안되었다로 나눌 수밖에 없지만, 모든 선생님들 중에 힘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선생님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교사 이니까요.

티오에 많이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올해 경남을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은 주변에 부산, 울산 광역시가 있고, 올하는 특히 티오가 두군데 모두 많이 나와서, 지역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혼란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물론 티오가 많이 나오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원래 첫 마음을 먹었던 경남으로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티오가 많은 부산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1차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할 점수가 나왔었기에, 올해 합격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택을 할 때에 소신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후회없는 선택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잘 할 수 있 습 니 다. 올 해 는 여 러 분 의 자 리 입 니 다 .